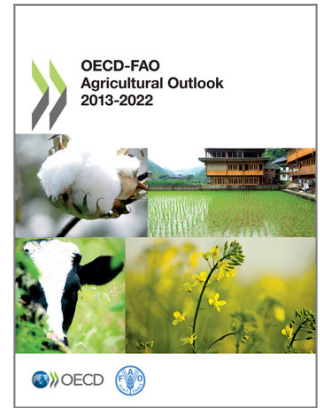


OECD *Multilingual Summaries*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

Summary in Korean



Read the full book on: 10.1787/agr_outlook-2013-en

2013 년 OECD-FAO 농업 전망

국어 개요

개발도상국에 우호적인 수요 증가: :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전세계 농업은 선진국의 정책적으로 유발된 생산잉여와 개발도상국의 성장정체로 특징지어졌다. 전세계에 걸친 정책개혁과 경제성장은 농업에서 수요/공급의 펀더멘털을 변화시켰으며, 농업을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시장주도적인 부문으로 전환시켰다. 개발도상국의 전세계 생산점유율이 상승되고 수출증가의 대부분을 개발도상국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 둔화된 생산증가: 본 전망에서 다루고 있는 1 차상품의 전세계 농업생산은 연간평균 1.5%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수치는 지난 10 년간의 2.1%와 대비된다. 이러한 둔화된 성장은 모든 곡물부문과 축산생산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는 비용상승, 자원제약증가, 환경압박증가 등을 반영한 것으로,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공급반응을 저해할 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완화된 식량가격 인플레이션: 1 차상품 가격과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자신의 식품에 대한 지불금액과의 사이의 상관관계는 일반적으로 직접적이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1 차상품 가격이 높게 유지되더라도 식품 가격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수 있다는 일부 증거도 존재한다. 하지만, 가계예산의 25-50% 이상을 식품비용이 차지하는 다수의 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는 식품 부담비중이 커다란 우려사항이 된다.

글로벌 경제의 분화를 반영하는 시장: 농업시장은 경제침체기에도 상대적인 탄력성을 가지고 있지만, 선진국의 미약한 회복세와 개발도상국의 활발한 성장세라는 두 가지 속도의 글로벌 경제회복을 계속해서 반영하고 있다. 농산물 가격예측에서 석유가격 상승이 중요하지만 예상이 불가능한 요인이다. 미국 달러화 평가절하는 다른 수출국의 상대적 경쟁력을 감소시키고 다수의 수입국들의 구매력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중기적인 측면에서 가격 상승 예상: 1 차상품 가격은 현재 역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곡물가격은 생산이 다시 증가함에 따라 하락할 것이지만, 낮은 재고곡물량으로 인해 육류의 가격은 높게 유지될 것이다.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곡물가격과 축산제품가격 모두가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육류, 생선, 바이오연료가격은 더욱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조정된 가격: 2013-2022 년 기간 사이의 평균 실질가격은 본 전망에서 다루고 있는 대부분 1 차상품의 2003-2012 년 평균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향후 10 년간의 평균 실질가격은 최근 몇 년 동안 경험했던 최고 수준보다는 낮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 증가: 본 전망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제품은 개발도상국에서 그 소비량은 인구증가, 소득증가, 도시화, 식생활 변화 등으로 인하여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그 증가속도는 약간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1 인당 소비량은 유럽과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그 뒤를 이어 남미와 다른 아시아들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농업무역: 이머징 경제들이 무역증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여, 미정제 곡물, 쌀, 채유종실류, 식물성유지, 설탕, 소고기, 가금류, 생선의 수출 대부분을 점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OECD 지역의 무역점유율은 계속 하락하겠지만, 밀, 면화, 돼지고기, 양고기 및 대부분의 유제품의 주요 수출국의 지위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전망의 불확실성: 생산부족, 가격변동성, 무역중단은 전세계 식량보안에 커다란 위협으로 남아있다. 이는 특히 낮은 재고수준의 측면에서 더욱 그러하다. 2012년에 미국과 독립국가연합에서 발생했던 것과 같은 광범위한 가뭄현상은 낮은 재고수준과 결합하여 곡물가격을 15-40% 상승시킬 수도 있다. 에너지가격은 바이오연료 시장과 생산비용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불확실성 요인으로 추가된다. 세계무역은 생산보다도 더욱 산출변이성과 미시경제적 동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중국 포커스: 본 전망의 이번 호에서는 농업-식량부분에서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특별고찰을 수행했다. 생산계약과 수요상승에 당면한 중국은 향후에 식량의 수입을 더욱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지만, 전반적으로 주요 식량곡물에 있어서는 자족적인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연간 소비증가의 속도는 생산증가의 속도보다 약 3% 정도 빠른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예상치는 이전 10년동안의 추이와 비슷하다. 그 결과 중국 농업부분의 추가적인 완만한 개방이 예상된다. 하지만 1차상품별로 이러한 개방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식량안보와 쌀/밀의 자족을 정책최우선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농업생산량은 1978년에서 2011년 사이에 거의 5배 증가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식량가격은 상승하고 있으며, 생산량은 비용상승과 노동력 제약으로 인해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식량가용성 상승과 소득증가로 인해 식량안보가 현저하게 향상되었다. 이로 인해 1990년 이후로 총인구는 2억명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양부족으로 영향을 받는 인구수는 거의 1억명이 감소했다. 영양부족으로 영향을 받는 인구수를 감소시키는 것이 여전히 주된 과제로 남아있다.

2001년에서 2012년 사이에 중국 농업부분의 수입 및 수출의 규모는 미화 279억 달러에서 1,557억 달러로 증가했다. 중국의 농업수입의존도는 6.2%에서 12.9%로 두 배로 증가했으며, 2012년 중국의 농업 및 식량부분에서 순무역적자는 미화 310억 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이 가진 주요 불확실성에는 현재 진행 중인 경제고성장의 지속가능성 여부, 생산의 과정에서 자원제약요인 증가 및 기후 불예측성 상승에 따른 생산변이성 증가 등이 포함된다.

2022년까지의 전세계 1차상품 예측치

- 곡물류: 연간 생산은 1.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총 증가의 57%는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태국이 쌀 수출 최대국이 것으로 예상되며, 그 뒤를 베트남이 추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미국은 밀과 미정제 곡물의 지배적인 수출국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채유종실류: 생산증가율이 곡물류보다 더욱 높을 것으로 보인다. 팜오일은 식물성유지 총생산의 34%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 설탕: 생산은 매년 2%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브라질과 인도가 최대 생산국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도상국이 전세계 설탕의 지배적인 소비국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 면화: 인공섬유가 사상최대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면화생산은 25% 증가하여 세계최대 생산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에탄올: 생산량은 70% 가깝게 증가하며, 이는 바이오연료가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생산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2022년까지 바이오연료 생산에 전세계 사탕수수 총생산량의 25%, 식물성유지의 15%, 미정제 곡물의 12%를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 육류: 개발도상국이 전세계 생산량 증가의 8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인당 육류소비량 증가는 주요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의 소비수준으로 접근함에 따라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 낙농제품: 개발도상국은 전세계 우유생산의 74%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의 소비는 생산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 유럽연합, 뉴질랜드, 호주, 아르헨티나의 수출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 어업: 어획량은 5%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양식업 생산량은 35%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까지 양식업 생산량이 어획량을 넘어설 것이며, 양식업 생산이 인간의 어류 소비의 주된 자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OECD

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본 개요의 복제는 경제개발협력기구의 저작권 및 해당 출판물의 제목이 명시될 때에만 허가됩니다.

본 개요는 다음과 같은 영어 붙어 제목으로 출판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출판물 중에서 발췌한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본 개요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온라인 서점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oecd.org/bookshop

자세한 정보는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ublic Affairs and Communications Directorate 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rights@oecd.org 팩스: +33 (0)1 45 24 99 30.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AC)

2 rue André-Pascal, 75116

Paris, France

본 기구 웹사이트 www.oecd.org/rights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Read the complete English version on OECD iLibrary!

© OECD/FAO (2013),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 OECD Publishing.

doi: 10.1787/agr_outlook-2013-en